

일란성 쌍생아간 생체 신장 이식경험

가톨릭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김용균 · 윤혜은 · 김수현 · 최범순 · 양철우 · 김용수 · 김석영 · 방병기

Living Related Kidney Transplantation between Identical Twins; Clinical Observations

Yong Kyun Kim, Hye Eun Yoon, Su Hyun Kim, Bum Soon Choi
Chul Woo Yang, Yong Soo Kim, Suk Young Kim, Byung Kee Bang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College of Medicine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Seoul Korea

목적 : 일란성 쌍생아간의 고휘 장기 이식은 면역학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형태로 간주되고 있다. 저자들은 일란성 쌍생아간의 생체 신장 이식 후 임상경과 및 예후를 조사하였다.

방법 : 1981년부터 2005년까지 시행한 1500예의 신장 이식 중 일란성 쌍생아간의 생체 신장 이식을 받은 3명의 환자에서 후 이식신의 기능 변화, 원인 질환의 재발여부, 이식신 생존기간 및 면역 억제제 투여 여부를 확인하였다.

결과 : 세 명의 신장이식환자의 원인 신질환은 확진 되지 않았으나 임상적으로 만성 사구체 신염으로 의심되었으며 이식 받을 당시의 나이는 26세, 33세, 39세였다. 면역 억제제 투여기간은 1예에서 사이클로스포린은 이식 후 12개월째까지, 스테로이드는 8개월째까지 투여 후 중단하였으며 1예에서는 사이클로스포린을 15개월째까지, 1예에서는 초기에는 면역 억제제를 투여하지 않았으나 이식 후 5개월째부터 요단백이 발생하여 96개월까지 아자티오프린을 투여 후 중단하였다. 이식 후 시행한 신장조직 검사를 시행한 2예에서 IgA 신증으로 진단하였다. 이식신의 기능소실은 2예에서 있었으며 그 생존기간은 각각 57개월, 195개월이었으며 1예는 137개월째 정상적인 이식신기능을 유지하고 있다. 이식신의 기능소실의 원인은 1예에서 이식신에 발생한 IgA 신증에 의한 급속 진행성 사구체 신염이었다.

결론 : 일란성 쌍생아간의 생체 신장 이식 시 만성신부전의 원인질환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며 이식신에 원인 질환의 재발을 막기 위해 면역 억제제 투여를 고려해야 할 것을 시사한다.